‘침체 늪’ 빠진 광주 제조업…7분기 연속 악화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88…잘나가던 자동차·부품도 기준치 밑돌아
광주·전남 중기 7월 경기전망지수 78.6…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
러-우 전쟁 속 고물가·고금리 지속…내수 막히며 지역 경기 얼어붙어

광주·전남지역 경제계에 드리운 경기침체의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올 연초만 해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지역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88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지수가 7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면서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2분기 실적 역시 78로 집계됐는데, 글로벌 경기위축과 투자 및 수출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은행 위기 문제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위축와 수요산업 부진 등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하절기 야외활동 증가로 매출 증가를 예상한 ‘식음료(100)’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신제품 출시로 매출증대를 기대한 ‘IT·전기·가전(113)’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악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고무·화학(83)’, ‘유리·비금속광물(33)’ 업종은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를, ‘철강·금속가공(46)’, ‘기계·금형(88)’ 업종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품처 발주량 감소와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매출감소를 예상하면서 경기하락을 전망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자동차·부품(93)’ 업종도 누적수요 실현과 경기 부진에 따른 신규 수요유입 감소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는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8.6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전월(81.9) 대비 3.3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은 76.9로 나타나 전월(80.8) 대비 3.9포인트 추락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고물가, 경기부진 등으로 기대감이 위축돼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 저하,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수요산업 부진 등이 예상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기업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정부 차원의 금융시장 및 물가의 안정, 수출 및 투자 지원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꺾이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폭우 등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밥상 물가’ 역시 심상치 않다.

우-러 전쟁에 이상 기후로 식량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폭염과 폭우 등 날씨 탓에 올 여름 농산물 값이 평년보다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여름 잦은 강우와 고온, 태풍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는데, 배추와 마늘 등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될 식재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겨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산단공 광주 제조거래센터,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참가

제조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에서 운영하는 제조거래센터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국제뿌리산업전시회’에 참가해 제조거래센터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제조거래센터에서는 제조를 하려는 고객과 제품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업 홍보와 함께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조 컨설팅 서비스는 제조거래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시제품 기획·설계·제작, 제품 양산공장 매칭, 제품 홍보·마케팅 등 제조 전주기에 걸쳐 제공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다. 2020년 142회에서 653회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밖에 제조거래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예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제품 제조수요를 발굴, 발굴된 제조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제조공장을 찾아 연결해주는 제조수요-공급기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제조거래 440건 이상 매칭지원을 해왔으며 매칭 금액은 250억원 이상이다.

또 제조수요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제품 무료 제작 지원을 통해 우수아이템 제품화를 지원하고, 공급기업 매칭 후 양산자금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과 양산제품의 홍보·마케팅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황상현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기반의 뿌리산업 관련 제조기업에 제조거래센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제조매칭 기회를 넓혀갈 것”이라며 “일감확보와 사업다각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하남농협, 창억떡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협약

쌀·천일염 1억6000만원 상당 공급

하남농협(조합장 박상욱)은 최근 (주)창억떡(대표 임철한)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6000만원 상당의 국내산 쌀과 신안 천일염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날 업무협약으로 하남농협은 떡 전문 제조업체인 (주)창억떡에 떡 원재료인 국내에서 생산된 쌀 2000가마(20㎏), 신안 천일염 2000가마(20㎏)를 창억떡에 공급한다.

하남농협은 우리 농수산물 공급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집값 하락 멈추나…광주·전남 하락폭 줄어

광산구 49주만에 보합세 전환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여 만에 멈췄지만,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매물이 소진된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은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광주는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하락 폭이 줄어든 것은 물론, 광산구의 49주만에 경우 보합세로 전환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5월 둘째 주(-0.01%)부터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1년 1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0.04% 올라 6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 0.03%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폭이 커졌다.

전주 0.1% 하락했던 광주는 이번 주 0.04% 내리면서 하락 폭을 줄였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49주 만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9%)보다 소폭 개선돼 0.08% 하락했는데, 신기·옹천동 위주로 하락한 여수(-0.19%)와 나주(-0.12%)의 하락 폭이 컸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0.02 (-14.17)
↓	코스닥	861.79 (-5.18)
↑	금리 (국고채 3년)	3.560 (+0.003)
↑	환율 (USD)	1317.60 (+10.30)

광주경총, 이익주 교수 초청 금요조찬 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30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1610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익주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이수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각종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 교수는 ‘우리 역사 속의 혁명가 정도전을 만나다’를 주제로 ‘고려 말의 위기’와 ‘정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혁명: 백성을 위한 정치’, ‘정도전의 리더십’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를 시작한 이래 33년 간 매주 금요일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열고 있다. 지역 기업 CEO와 지역민들의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는 등 전통과 권위를 자랑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